

## 문화전당 내년 부분개관 어렵다

### 문화도시추진단 “콘텐츠 없고 시설 서로 연계…개관 불가능”

#### 광주시 “문화산업특구 투자 유치 차질…지속 추진”



폭우피해 복구 구슬땀 육군 제31사단 해남대대 4대대 장병들이 12일 폭우 피해를 입은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 한 오리농가에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선 5기 들어 광주시가 요청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2012년 부분개관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전당 내 5·18 관련 보존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이후 정식개관인 2014년 말보다 2년 앞당겨 부분 개관함으로써 국내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당 주변 권역 등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내 민자 및 기업체 유치 등에 나서겠다는 광주시의 전략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12일 “광주시의 요청이 있어 2012년 부분 개관을 검토했으나 부분 개관할 시설들의 콘텐츠가 미흡하고 완전 개관까지 2~3년간 운영 프로그램 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2014년 말 완전개관에 매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본관 및 보존 별관, 민원실, 상무관 등 7개 보존시설과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신규 시설이 서로 연계되는 복합문화시설

이어서 부분 개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관계자는 “광주시가 부분 개관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며 추진단에서도 이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종합적인 판단 끝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옛 도청 별관 문제 등으로 개관 시기가 늦춰진 만큼 이제는 국비를 제 때 지원받아야 하는 데 광주시와 지역정착권, 추진단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당 건립공사 공정은 22% 정도로 오는 2012년까지 이를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500억~2000억원 이상이 집중 투입돼 정상적인 개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전당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1562억원을 요청해 부처 예산에는 반영됐으나 향후 기재부 및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추진단은 보존 시설 개선사업으로 조성될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지역 내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기본·실시설계를 마쳐 내년 초 착공할 방침이다. 또 올해 15억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전담할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전당 주변에 설립하는 등 개관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광주시 관계자는 “2014년 말 완전개관이 예정돼 있지만 현 정부는 물론 국내외에 전당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부분 개관을 추진한 것”이라며 “부분 개관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인 추진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꾸준히 요청할 예정이며,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권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 올 대입정원 62% 수시 선발

### 23만7000명…전남대 58%·조선대 66% 뽑아

다음달 시작되는 2012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올해 총 입학정원의 62.1%인 23만7000여명이 선발된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각각 모집정원의 58.0%, 66.1%를 수시전형에서 뽑는다. <관련기사 7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예년보다 한 달 빠른 8월1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며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16.1%인 3만 8169명을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 중 수시모집을 하는 대학은 196개대이며 선발 인원은 23만 7681명으로 지난해보다 2431명(0.5% 포인트) 늘었다.  
전남대는 신입생 정원 3676명 가운데 2135명(58.0%)을, 조선대는 신입생 정원 5208명 중 3445명(66.1%)을 수시전형에서 선발한다.  
전남대는 전형별로 학생부성적 우수자(1543명), 전공특성우수자(177명), 농어촌 학생(137명), 특성학교 출신자(102명) 검정고시출신(54

명) 순으로 선발한다.  
조선대의 경우 수시 1차에서는 입학사정관(530명), 농어촌학생(193명), 전문계고 출신(145명) 저소득층(96명)순으로 뽑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대학은 애초 예고한 모집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충원 기간까지 미충원 인원이 생기면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뽑는다.  
수시 원서접수와 전형은 오는 9월8일(입학사정관 전형은 8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된다. 2012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의 내용은 대학교육입학사정관센터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US女오픈 ‘코리안 쇼’

### 연장철투 유소연 우승

세계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 번째 메이저’ US여자오픈에서 한국 선수거리 연장 철투를 보이는 ‘코리안 쇼’가 연출됐다. <관련기사 16면>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콜로라도스프링 브로드무어골프장(파71·704야드)에서 끝난 4라운드 잔여 경기 3개 홀에서 마지막 18홀(파4)에서 극적인 버디로 연장전을 만든 유소연(21·한화·오르복)은 “마지막 3개 홀 연장전”에서도 2연타를 작성하며 서희경(25·하이트)을 제압하고 ‘메이저 킵’에 등극했다.  
두 선수는 2009년 국내 무대에서 4승과 5승을 각각 거두며 삼강왕 경쟁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중국의 오리엔트차이나오픈에서는 연장전 끝에 유소연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MB, 박지사에 “F1 별도로 얘기하자”

### 대회 준비 격려…이례적 관심 정부 소극적 태도 탈피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대회에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유치하는 지구상 다섯 번째 나라가 되면서 F1 대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 그랜드슬램’은 지구촌 주요 스포츠 이벤트인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 F1 대회를 일컫는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남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경남·전남지사과 화상통화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박준영 지사에게 “올해 두번째로 F1 대회가 열리지요, 잘 추진되도록 하십시오”라며 차질없는 대회 준비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수

해 피해 상황을 보고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스포츠 그랜드슬램의 하나인 F1 대회 추진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F1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할 기회를 갖자”고 밝히며 F1대회 추진과 준비과정 등을 점검할 기회를 가질 생각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 대통령이 F1대회에

관심을 표시한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먼저 F1대회를 언급하시며 대회준비에 관심을 나타내셨다”면서 “부지양도·양수와 국비 지원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 7월 14일 GRAND OPEN

#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하나로클럽 · 원농 식재료전문매장 · 농산물도매매장

행사기간 : 7.14 부터  
(행사일정은 전단지 참조 하세요.)





**농협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지구 임방울대로 261번지  
TEL. 062-650-0001 FAX. 062-650-0099  
http://www.nh-hanaro.com/gwangju

**신선 먹거리로 가득한 하나로클럽**

One-Stop쇼핑을 제공하는 하나로클럽은...

- 영업시간 - 10:00 ~ 24:00 (365일 연중무휴)
- 문의전화 - 고객센터센터 062-650-0001

**One-Stop쇼핑 원농 식재료전문매장**

사업자 회원을 위한 식재료전문매장은...

- 영업시간 - 08:00 ~ 24:00 (365일 연중무휴)
- 문의전화 - 고객센터센터 062-650-0123

**호남권 물류기지 농산물도매매장**

농산물도매매장은...

- 호남지역 최초 신지 농산물의 당일 공급, 직거래 도매가격 공급
- 문의전화 - 고객센터센터 062-650-0001

클릭 한번으로 **NH쇼핑**

이제, 우리 땅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생활용품을 집에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www.nhshopping.co.kr